



◇정토회관 공양실에서 공양준비에 여념없는 허경미 보살. 사진=고영배 기자

공양간 삼매 허경미 보살

하루에 50~100명의 밥상을 마련하고 일주일에 800~1,000명 이상의 식단을 기획하는 사람. 10년 동안 두 시간 걸리는 거리를 매일같이 달려

일주일 800~1000명 식단 준비 "마음 관하면 요리 힘들지 않아"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민의 노고가 스며있다 했습니다. 그 귀한 양식으로 공양을 지어주시는 일이 바로 제 일이지요. 쌀 한 톨, 물 한 방울에 스민 불법의 이치를 날마다 접할 수 있어 그저 흐뭇할 따름입니다."

일과 수행 뭐가 다른가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보살의 영원한 화두. 그러나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참선하거나 경읽는 것은 '수행'이고 대사회적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바라밀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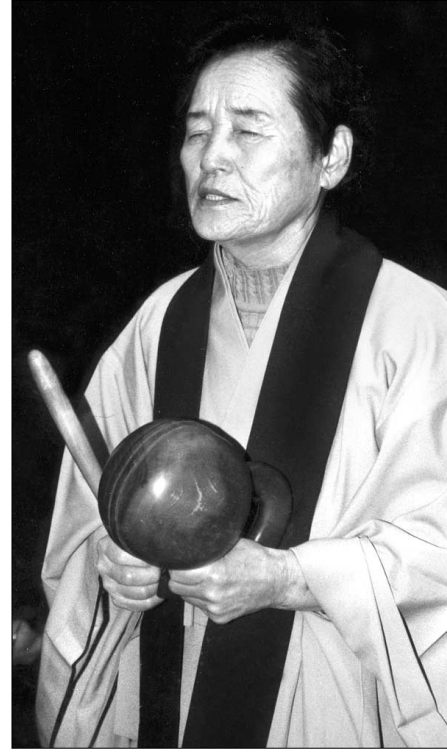
정토회 자원봉사자들

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경청해봐도 깊이 스민 진심은 '역시'나 '다' 물론 봉사 초기에는 일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밀려드는 잔걱정에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고 지우

12월 9일 오전 10시 변경 김명월(73) 법사의 발길이 빨라진다. 법복을 급게 갖추고 목탁을 조심스레 쥐어든 모습에서는 빈틈없는 수행자의 마음이 엿보인다. 12년 동안 매일같이 집전하던 사시기도 지난 부처님전에 서는 마음은 예나 지금

성불하겠다는 믿음으로 시작 아픈 몸 이끌며 고성염불 정진

이나 변함이 없다. "부처님 가는 길이 좋아서 시작했어. 부처님처럼 되기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나도 중생들도 모두 성불하겠지 하는 믿음, 그 마음이 병으로 지친 노보살을 어루만졌던 길까. 그는 수술이 아니라 떨치기 힘들었던 자궁암도 극복했고, 한계에 이



◇정토회당 사시기도를 집전하고 있는 김명월 법사. 사진=고영배 기자

12년째 기도집전 변경 법사

른 할당량에 허덕이면서도 당뇨의 그늘에서 서서히 멀어질 수 있었다. 소생의 길에 이른 그는, 이후 정토회의 모든 기도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 그의 고성염불은 그 같은 마음을 오롯이 녹여낸 것. 그래서 그는 일흔이 넘는 고령에도 혼을 울리는 듯한 고성염불에 몸과 마음을 신는다. 스님을 대신해 기도와 재를 집전한다는 것에 법사의 마음이 가법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런 그의 뒤를 맡없이 좇아 일년 기도에 빠지는 신도들이 늘고 있다. 그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죽는 그날까지 늘 새롭을 것이다. (02)587-8990 김상재 기자 thaisyw@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장 스님 (T)

대중과 불교 연결의 선구적 역할

특히 자장 스님의 부모는 어느 부모와 달리 출가를 말리기는 커녕 딸의 출가를 무척 반가워했으며, 그를 역시 20여년이나 연하인 성운 대사에 귀하여 깎듯이 스승으로 모셨다. 또한 외손자까지도 출가했는데, 이에 대해 성운(佛光山 開山宗長) 대사는 "자장 스님의 집안이야말로 진정한 불교 집안"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불광산 사원은 물론이고 일본 동경별원과 태국, 홍콩, 필리핀 등지에까지 미쳤으며 마침내 미국 서래사(西來寺) 건립으로까지 이어졌다. 1978년 단지 2만 달러만을 지니고 생면부지의 미국에 가서 무려 10년만에 서구 최대의 불교사원인 서래사를 창건하기까지, 스님의 고군분투는 눈물겨운 정진의 연속이었다.



◇대만 비구니계 원로인 자장 스님.

경전 출간 등 불교문화 질 높이기 헌신

미, 서래사 건립후 교세 국제화에 앞장

이제 70세를 넘긴 자장 스님도 옛일을 돌이켜보면 감개무량하다고 한다. "출가 40년 동안 온갖 사연도 많았으나, 이제 대만의 불교도 자리를 잡아 대중들이 출가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누구나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그 당시의 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장 스님의 원력으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 하시엔다 하이츠에 서래사가 세워진 것은 불광산이 국제적으로 교세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부지 15에이커에 평면적면적 102,432평방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절인 서래사는 대만 불광산의 일선 사찰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신도조직인 국제불광회(180개 지부 100만여명)의 국제단위조직이다. 미국에 서래사가 건립된 이후, 불광산은 미주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호주, 인도 등 세계 각지에 대규모의 별원을 건립하여 대승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자장 스님은 스승인 성운 대사의 원력으로 돌리지만, 1년의 절반을 가방 하나만 들고 동분서주하며 건설을 감독한 자장 스님의 공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봉사에 15년째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경주지역 불교봉사단체인 '카루나의 모임(회장 중수스님)' 회원들이 바로 그들. 지난 88년 10월으로 시작해 현재 천 명이 넘는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카루나의 모임은 창립 이래 경주지역 곳곳을 살피며 소년소녀 가장 봉사에 전념해 왔다.

15년째 봉사...회원 천명 전국 봉사 네트워크 구성

다. 이들은 지역별로 봉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지역의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동시에, 밀반찬 준비·빨래 등의 노력봉사와 후원금 보시 및 모금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11월 1일을 '소년소녀 가장의 날'로 지정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054)741-0800 김상재 기자



◇'소년소녀 가장의 날' 지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카루나의 모임 회원들.

삶의 의미를 통찰하고, 영혼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전생, 빙의 전문」 특별워크샵

아주 오래된 과학, 특별한 치유의 세계!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WWW.HYPNOS114.COM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지주는 물론, 신약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V를 통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간혹 소개가 되고 있지만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많은 유명 대학에서는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 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인연으로 인도해 주신 부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내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로 인한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명과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달게 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락-

교육내용 교육과정 이수 후 즉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최면이란 : 최면개론, 활용범위, 최면암시, 시술방법, 유도기법, 심화기법, 자기최면, 자율훈련을 통해서 최면의 공명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 연령별행 실기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최면심리치료 기법을 적용, 문제점식제 및 통찰,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 전생회행 실기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참회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한다. 4. 미래진행 실기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확신시켜준다. 5. 명기천도 실기 : 빙의된 영가의 확인, 대화를 통한 원한관계 파악, 해원과정, 빙의중세치유, 명기유유, 명기천도기법, 천도확인 및 재입신 방지 명치유법. 6. 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 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신도관리법을 자문함. 7. 치유력향상기법 : 영성강화와 최면치유암시를 위해 심신질환의 자연치유력 향상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서동 248-30(청운빌딩 2층 전라시민회관 후문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E-mail : admin@hypnos114.com



대野 임재형 박사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심리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부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전생빙의연구원 전생상담사 인종서 수여 [정규개강] 2003년 12월 19일(금요일) 12:30 [교육기간] 2003년 12월 19, 26일, 1월 2, 9일 매주 금요일, 총 4회 오후 12:30~오후 8:00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입금 후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확실한 신분 보장 [교육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익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